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HEN THE EVERYTHING FEELS LIKE THE MOVIES

가제 : 세상 모든 일이 영화 같다면

저자 : Raziel Reid

출판사: Arsenal Pulp Press

발행일: 2015년 4월 14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아동문학 캐나다총독상 수상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세계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다. 꼭 내 목구멍 안에서 유리가 깨진 것 같았다.” 여자애 같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디’로 불리며 늘 고약한 아이들에게 얻어 맞고 사는 주드는 세상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학교 전체를 한창 촬영 중인 영화 세트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학교 안 모든 인물들은 내부의 복잡한 사회적 구조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모든 사건과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제작진’, 큰 화면 속 빈 공간을 채우듯 교실 안 공간을 채우고 있지만 누가 누군지 구분되지 않는 ‘엑스트라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너도나도 페이스북 사진첩에 태그를 달아 올리고 싶어 안달하는 대상인 ‘주연 배우들’. 그런데 이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바로 주드 자신이었다. 주드는 엄중한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한 어떤 일도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작진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수군대니 그 존재감 면에서 엑스트라도 아니며,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작 친목 모임이나 파티에 초대받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주연 배우도 아니다. 하지만 주드는 이 독보적인 자신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목숨과 맞서더라도 자신을 죽여라 괴롭히는 놈들이 계속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뜨거운 다짐을 품고 살아간다. 주드의 꿈은 바로 이 콧구멍만한 지루한 동네를 벗어나 큰 성공을 거두고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엄마의 직업은 스트리퍼. 양아버지는 마약에 중독된 데다 심심하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형편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용돈은 여기저기 주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학교 강패들은 힘으로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트위터를 신문처럼 활용하며 주드의 일거수일투족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삶의 모든 일들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며 주인공이 될 날을 꿈꾸는 한 십대의 처절한 사투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인 엔젤라와 주드 두 사람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그것이 두 사람의 힘겨운 삶을 지탱해주는 동력이기도 하다. 엔젤라는 학교 안의 뒤엉킨 관계들과, 잔인한 먹이사슬에서 어떻게든 맨 윗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발버둥치는 야심찬 여학생이다. 그녀의 이 굶주린 욕구는 어느 정도 주드에게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엔젤라는 주드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무수히 보아왔고, 그와 지금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지만 게이인 주드는 자신과 그런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엔젤라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주드를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괴물로 변해간다. 주드 역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만다. 수시로 자신을 괴롭히는 강패 중 한 사람이자 언젠가 스케이트보드로 자신의 머리통을 박살낼 뻔 했던 가장 악랄한 인물 매트의 친구이기도 한 루크 모리스에게 언젠가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만 것이다. 세상의 주변부만 맴돌며 바보 같이 살기 싫은 주드는, 결국 발렌타인 데이 댄스파티가 예정된 어느 날, 루크에게 파트너로 함께 가 달라는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을 만큼 이미 엉망진창인 주드의 생활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제작 준비’, ‘회상 장면’, ‘싸움 장면’, ‘감독판’ 등 영화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각 장의 소제목으로 등장하는 이 소설에서, 우리는 유명인을 꿈꾸는 주드가 사실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보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스스럼없이 내보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너무도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 마치 영상을 보듯 생생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묘사와 빠르게 전개되는 속도감으로 누구보다 힘들게 자아를 찾아가는 주드의 고투를 독자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해 11월 캐나다 총독이 수여하는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캐나다 CBC 방송이 선정하는 ‘Reads crown’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저자 소개>

레이철 레이드(Raziel Reid)는 뉴욕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단역 배우, 댄서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작품은 그의 소설 데뷔작이다.

제목 : PULL

가제 : 시간 조작

저자 : Anne Riley

출판사: Spencer Hill Press

발행일: 2015년 12월

분량 : 106,000 words

장르 : YA 소설



영국의 조용한 마을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시간을 되돌려 결말을 바꿔버리는 미스터리한 남자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계신 런던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한 로지네 가족. 할아버지도 뵙고, 약물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로지의 오빠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휴가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런던 동남부의 고요한 동네 블랙히스에 도착한 첫 날, 병 때문에 너무나 쇠약해진 할아버지를 뵙고 가족 모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지쳐버린 로지는 남자친구인 스티븐마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어두워졌지만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러 산책에 나서는 로지. 할아버지 얼굴과 스티븐에 대한 배신감이 번갈아 떠오르며 혼자 울며 걷는데, 저 멀리 길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소녀가 휴대전화를 쳐다보며 로지보다 한참 앞쪽에서 걷고 있었다. 갑자기 그 웃음소리를 낸 남자 두 명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강풍에 날리는 치마 한 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느라 그들을 못 본 것 같았다. 열은 가로등 불빛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자들 한 명은 키가 크고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이었고 한 명은 키가 작은 땅딸막한 체격에 대머리였다. 대머리 남자가 소녀를 향해 놀리듯 휘파람을 불어댔고, 소녀는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로지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뒤쫓았다. 얼마 못 가 붙들린 소녀는 비명을 질러대며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움푹달싹 못하게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다. “이봐! 그 여자애 놔줘!” 로지는 있는 힘껏 외쳤지만, 남자들은 못 들었는지 무시하는지 이쪽은 보지도 않는다. “경찰에 신고할거야!” 로지는 목청이 터져라 외치며 그쪽을 향해 달려갔지만, 두 남자는 근처에 주차해둔 차에 소녀를 던지듯 태우고 사라져버렸다. 로지는 차를 향해 다리가 부서져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때 갑자기 무언가가 로지를 막아섰다.

시간을 조작하는 미스터리한 남자, 사건에 연루되어 악랄한 자들에게 쫓기는 한 소녀의 분투

공기가 두꺼운 막으로 굳어버려 둘러싸인 느낌이 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느껴

지며 다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 정면을 보며 달리고 있는데, 내려다보니 발이 보도블럭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때, 소녀를 잡아가던 남자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로지에게 다가왔다. 로지가 그 이상한 힘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그가 복부를 폭, 찔러버렸다. 로지는 땅에 그대로 쓰러졌고, 갑자기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시야를 흐리는 이상한 색깔들에 어지러움을 느낀다.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번쩍, 하더니 주변은 조용해졌다. 그런데 조금 뒤, 마치 되감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다. 꿈을 꾸듯 흥미한 로지의 눈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남자들에게 붙들린 소녀를 구한 것이다. 분명 벌어진 일이 판이하게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로지는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다.

그 미스터리한 남자의 이름은 알버트.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그 남자는 강도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는 것으로 보아 싸움을 한 두번 해 본 솜씨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 시간을 ‘끌어당겨’ 뒤로 되돌리는 기술이었다. 덕분에 소녀도, 로지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처음엔 놀랍기만 하던 알버트에게 서서히 마음이 끌리는 로지는 그가 비밀에 싸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납치당할 뻔한 소녀의 사건을 채 잊기도 전에, ‘모티페리’로 알려진 악당이 로지와 로지의 오빠 폴을 쫓기 시작하고, 로지는 알버트에게 도움을 청한다. 희한하게도 알버트는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아는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모티페리가 결국 폴을 붙잡아 인질로 데려가 버리자 로지는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잃더라도 오빠를 살리기로 마음 먹는다. 그녀의 고된 싸움은 성공할 수 있을까? 대체 알버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이상한 능력은 어떻게, 왜 가지게 되었을까?

<저자 소개>

앤 라일리(Anne Riley)는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광고와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면서 YA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